

## 치과관련 의료분쟁 “평소 적극 대비 자세가 최상” 법제위 ‘의료분쟁 대책 세미나’ 성황

의료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의료분쟁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세를 미리 확보하라!

1월 13일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가 주최한 '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연자로 참석한 황충주 교수(연세치대 교정과)는 '의료사고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평소에 의료 분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의료 분쟁을 막는 최상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예년에 비해 의료 분쟁이 보철, 교정, 소아치과, 치주, 임플란트 등 전 영역에 걸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 교수는 치과 진료실에서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예로 들었으며 특히 개원의들이 간과하기 쉬운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황 교수는 “환자들은 'Mental Osmosis' (정신 삼투현상)라 하여 치과의사가 진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거나 또는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설명의 의무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의료분쟁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치과계도 설명의 의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연자로 참석한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서기관은 '개원의와 관련된 의료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강 서기관은 개원가에서 간과하기 쉬운 의료법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 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안성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 의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 분쟁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관련 의료법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심도있는 강연을 마련한 연자들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 “최선을 다하자” 치의국시 실시 정 협회장 시험장 방문

제57회 치과의사국가시험이 1월 21일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날 시험에는 총 1077명의 접수자 가운데 33명이 결시, 96.9%인 1044명이 응시했다. 1077명의 접수자 중 183명이 외국대학 출신으로 필리핀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31명), 독일·브라질(각 3명), 캐나다(2명), 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외국치대를 졸업한 수험생 A씨가 국내 치과대학생들이 보유한 서브노트(일명 족보)에 대해 국시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친구를 통해 강남경찰서에 신고, 경찰서에서 족보를 압수해 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편 정재규 협회장은 이날 국시가 치러진 경기고등학교를 방문, 국시에 대한 제반 현황을 보고받고 국시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4개 국립대치과병원 태스크포스팀 가동 독립법인화 전면 나선다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치과병원이 주축이 된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본격 가동,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전면에 나선다.

태스크포스팀 팀장에는 최재갑 경북치대 교수가 간사에는 이병준 치무이사가 선임됐다.

치협은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치과병원 진료처장 및 교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최근 완료한 가운데 1월 2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국립대치과병원 독립화 추진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해 치협이 단독으로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물밑 접촉에 나서는 한편 의원입법 제정 등을 위해 고군분투 해 왔으나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해당 당사자인 병원들이 전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당 대학병원 및 대학 교수들이 태스크포스팀을 주축으로 전면에 주도적으로 치과병원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치협이 이를 전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치협은 애초 지난해 12월 의원입법 제정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왔으나, 사학법, 행정수도 이전 등의 사안에 걸리면서 진전이 없었고 해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의원입법 제정이 무산 됐다"고 밝혔다.

이 치무이사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립대치과병원 독

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부는 병원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서울대치과병원의 경과를 지켜 본 후 2007년 이후에나 검토 하지는 기본방침으로 치과병원 독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현재 사업에 제동이 걸려 추진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재갑 교수 등은 "치과병원 입장에서는 독립이 하루가 급한 실정이다. 치과병원 독립은 각 해당 병원의 주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독립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치협에만 맡기고 대학원에서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계기로 4개 대학이 연합해 주도적으로 독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자"고 강조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관련 부처 담당자 및 국회 교육분과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관련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해당 당사자인 치과병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독립의 필요성을 적극 알린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또 "이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해가 부족한 만큼 결국 의원입법으로 가야한다"며 "치협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 대학병원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스크포스팀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립대치과병원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전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치협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이사회서 결정...총회전 완공

치협 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이 시작된다.

2개 층으로 증축돼 지상 5층 건물로 치과의를 대표하는 건물인 치협 회관에 그동안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회관을 방문하거나 대강당 및 소강당에서 큰 행사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불편이 뒤따랐다.

치협은 1월 11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회관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윤두중 총무이사)는 1월 17일 회의를 갖고 4월 15일까지 최종 설치작업을 마치기로 결정했다.